

#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 활력

순창군, 3000여명 방문 ‘제9회 순창 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성료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열린 ‘제9회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항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관하고,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팔덕다용도경기장, 공설운동장, 섬진강체육공원, 생활체육운동장 등 총 8개 구장에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108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무엇보다 대회 기간 동안 약 3,000여 명이 순창을 방문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았다. 실제로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편의점 등은 대회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방문객들의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참가자들의 체류가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순창군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5개의 특설구장을 설치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철저히 마련했다. 경기장마다 얼음물을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열린 ‘제9회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비치하고 무더위 쉼터와 냉방 버스를 운영했으며, 선수 대기실에는 이동식 냉풍기 등을 선수들이 폭염 속에서도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큰 운영사고 없이 모든 경기가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유소년 야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눈에 띄는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 종목 중 하나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은 지역경제와 방문 인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스포츠 산업에 투자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스

포츠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의 리그별 우승팀은 다음과 같다. △‘새싹리그’ 완주시유소년야구단 △‘꿈나무 청룡’ 휘만이가 데미유소년야구단(A) △‘꿈나무 백호’ 완도군유소년야구단 △‘꿈나무 현무’ 연세유소년야구단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유소년 청룡’ 세종시유소년야구단 △‘유소년 백호’ 송파구유소년야구단 △‘주니어 백호’ 달성군C가 최종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순창=이왕원 기자

## 군민 안전 · 지역 현안 해결 사업 추진 탄력

임실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임실군이 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재원이다. 을 상반기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분야 1개 사업 8억원과 재난 안전 분야 1개 사업 3억원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8억원 △국사봉 전망대 인근 도로열선 설치사업 3억원 등이

다.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은 관촌면 청사와 체육·공공도서관 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생활 혁신 공간인 관촌면 행복누리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청사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과 관촌면 중심지 거점 기능 확대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사봉 전망대 인근 도로열선 설치

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국사봉 전망대 인근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북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옥정호 붕어섬 방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피움하우스 입주자 모집 경쟁률 36대 1

남원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남원 피움하우스’ 입주자 11세대 모집에 무려 401세대가 몰리며 경쟁률 36대 1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면서 마감됐다. ‘남원 피움하우스’는 남원형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브랜드로, 방치된

빈집과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해 월 임대료 1만 원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사업이며, 모든 세대에는 병장고·새타기·에어컨 등 생활필수품이 갖춰져 있어 몸만 오면 즉시 입주자 가능하다. 남원시는 신청자들의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22일 시청 누리집에 선발자를 발표하고, 8월 27일에는 입주자와 함께하는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폭발적인 신청 열기는 치솟는 주거비 속에서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시한 남원시의 과감한 정책과, 청년층·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맞춤형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육아 지원 인프라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부모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지원 인프라를 한층 강화한 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행복누리센터는 올해 다양한 맞춤형 육아·돌봄 프로그램 과 부모 교육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보육컨설팅 및 힐링프로그램, 유아·초등 이음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코딩, 요리, 장난감 만들기 등 부모-자녀 체험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는 9월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들썩들썩 정글숲’ 뮤지컬 공연도 마련,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맘행복누리센터는 키즈발레, 요리·미술, 영어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유아들의 체력증진과 두뇌



성폭력 예방교육 ‘들썩들썩 정글숲’ 공연

발달에 도움을 주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남원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아 관소리, 장구놀이 등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육체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는 각 센터 운영을 통해 부모의 양육 자신감과 부모-자녀 유대감이 강화되고, 어린이집 보육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남원시의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보육·돌봄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공보육 강화를 통해 보육격차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착’

남원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역사회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원래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로 조성된 공간이지만,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공간으로 새롭게 태

어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운동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체육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 후에는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어, 휠체어 농구, 좌식 배구 등 장애인 특화 종목뿐 아니라, 배드민턴·탁구·피트니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운영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스포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홍부골 포도’ 본격 출하

남원 ‘홍부골 포도’가 본격 출하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홍부골 포도는 지난 8월부터 수확을 시작해 9월 말까지 수확되고 있으며, 해발 400~500m의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독특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주로 캠밸러리 품종으로 과즙이 많으며 당도가 높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홍부골 포도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 7회, 우수상 3회를 수상하며 전국 최고 품질을 입증했으며, 현재 435농가가 당도 15브릭스 이상의 송이당 무게 380~420g의 규격



포도를 생산·출하하고 있어 최신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다. 2024년 기준 홍부골 포도의 재배면적은 244ha, 연간 유통량은 약 3,110톤이며, 총 조수익은 209억 원에 달한다. 현재 시세는 3kg 기준 35,000원~36,000원 선이며,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상표를 달고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임실군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25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추가 모집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를 둔 가정으로 진행됐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을 확인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분유 등 맞춤형 보충 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가정으로 직접 배송받게 되며, 영양교육과 개인 맞춤형 영양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는 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순창군이 가축 피해 보상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보험 가입비의 75%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산 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작물, 부속설비)이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절차는 △가입신청 △사전 현지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재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이상 기후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축산농가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축산농가의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별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